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1946년 3월 창간 제 2748호 E-mail : ihonam@naver.com 2019년 7월 23일 (음력 6월 21일) 화요일

인간 비행기 22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20m 하이다이빙 1라운드 경기, 호주 이플란트 리아넌이 멋진 연기를 하고 있다.

나주시,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선언

임진왜란 · 구한말 의병 뿌리 역할한 의병정신의 산실

1000여명 규모 유치추진위원회 구성…25일 추진위 발족

전남도가 전국 규모의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호남 의병의 뿌리인 나주시가 역사공원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 사업은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병역사를 재정립해 정의로운 역사를 일궈온 전남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나주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근왕의병을 일으켜 서울을 수복하고 호남을 지켜냈던 전라도 의병정신의 산실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나주시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를 위해 1000여명의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짓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시 청사에서 추진위 발족식을 겸한 유치결의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나주는 고려건국 이후 천년 동안 전주와 더불어 전라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군에 맞서 싸운 호남지역 최초의 의병장인 '건재 김천일(健齋 金千鎰 · 1537~1593년) 선생'을 시작으로 구한말 호남의병의 최초 창의지이자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병과 서훈자를 배출한 의향(義鄕)으로 손꼽힌다.

일제강점기에도 이러한 구국정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나주는 독립운동사의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받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도 유명하다. 당시 나주학생들은 일제의 민족차별 교육과 식민지 노예교육에 맞서 떨쳐 일어남으로써 전국적인 학생 항일운동에 불을 붙였다.

나주시는 올해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90주년'을 계기로 국난극복을 주도해온 전라도 의향정신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 역사의 시발점이자 의병정신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는 광주 · 전남지역 원로들과 '남도의병 역사공원' 나주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같은 유치전의 일환으로 의병문중, 독립운동단체, 기관 · 사회단체, 시민, 출향 향우 등 1000여명과 독립운동동지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선정이 확정되는 오는 8월말까지 의병공원 유치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라도 의향정신은 결국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나주의 선비정신과 풍요로운 경제적 기반 위에서 태동했고, 임진왜란부터 광복이 되기까지 나주인은 역사의 주인으로 활약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반드시 나주로 유치해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얼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공원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33만㎡(10만여평) 부지에 연면적 1만6500㎡의 건물로 조성된다. 주요시설로는 기념관, 전시실, 테마파크, 상징조형물, 학예실, 교육관, 편의 · 놀이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김정환 기자

'7년 숙원' 광산세무서 신설 가시화

행안부 심사 통과
내년 4월 개서 전망
세정수요 적극 대처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지역 경제계의 '7년 숙원'이었던 광산세무서 분리신설(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내부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4월께 광산세무서(가칭)가 서광주세무서로부터 분리해 신설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조직개편 관련 내부심사를 통해 '광산세무서 분리신설안'을 승인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세무서 승격은 지난 2013년부터 광주지방국세청과 지역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그동안 행안부 내부심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현재 광주권에는 광주, 서광주, 북광주 등 3곳의 세무서가 있으며 지난 2006년 이후 신설 세무서가 없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 · 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가 77만명, 납세인원 25만명으로 광주 전체 면적의 54%, 인구 49%를 점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난 2017년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성은 일부 해소됐으나 조직규모 특성상 관할지역의 한계와 세원관리 · 민원업무 위주의 업무 수행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광주지역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명에 달한 데다 앞으로도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어져 납세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경제 · 유관단체, 납세자 단체 등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나 건의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광산세무서 신설안이 행안부 내부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7년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광산세무서 분리 신설 건은 향후 기재부로 넘겨져 심의를 밟게 되며 국회 심의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초 개서준비기획단 발족에 이어 4월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때부터 광산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며 "각계의 노력 끝에 행안부 내부심사를 통과해 지역 경제인과 납세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여자 수구, 마지막 경기도 0-30패배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사상 최초로 꾸려진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지막 경기에서도 졌다.

〈관련기사 13면〉

대표팀은 22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쿠바와의 대회 여자 수구 15 · 16위 결정전에서 0-30(0-8 0-9 0-6 0-7)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여자 수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 5전 전패로 마무리했다.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최국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대한수영연맹은 5월 말에야 13명의 수구 국가대표를 선발했다. 선수들 대부분이 경영 선수 출신이고, 6월2일부터 불과 40여일을 훈련하고 세계 무대에 나섰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한국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격차는 명확했다.

대표팀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4골을 넣겠다"고 각오를 다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슈팅 24개를 시도했으나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세계적인 강국들과 극심한 전력차를 느끼며 모든 경기에서 대패했지만, 여자 수구 대표팀은 5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대회 전 목표로 삼은 '한 골'은 초과 달성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마치면 해체 수순을 밟는다.